

이코노 & 비즈 피플

정기승 스마트저축은행장

대출 문턱 낮춰  
소상공인들에  
폭넓은 금융 지원



“은행권 버금가는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 1년내 흑자경영”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민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기승(56) 스마트저축은행장은 9일 영업전략을 철저히 소비자 지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경영 전략을 세우고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영판단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취임하자마자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구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다.

자금 조달코스트를 줄이는 경영 효율화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낮춰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금융혜택을 제공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정 행장은 “지방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심사·분석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주먹구구식, 수동적인 영업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버금가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의 재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도심공동화, 열악한 경제 환경 탓에 저축은행은 물론 지역 경제가 침체돼있다”며 “지역기반을 굳히고 수도권 금융시장을 공략해 수익력을 높이는 한편,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되돌리는 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모기업인 대우그룹의 경영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저축은행이 오는 10월 1일 서울 역삼동에 지점을 내고 내년경 경인지역에 추가 점포를 개설하기로 한 것도 수익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예금은 물론 대출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에

서 타 은행과 경쟁함으로써 체질을 강화하고 수익증대를 노리는 다중모의인 셈이다. 기존 영업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산투자운용, 기업 금융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도 역점 추진과제라고 한다.

그는 “현재 구상중인 경영전략이 뿌리내리면 1년 내에 흑자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인재가 중요한 만큼 전직원이 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인력양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행장은 “행장의 업무처리를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정도 경영을 펼쳐 은행의 자산인 고객 신뢰를 쌓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교과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 은행감독관을 거쳐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을 지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폭염·열대야 ... 여름상품 ‘불티’

폭폭씨는 더위에 작년보다 수박·음료·에어컨 등 매출 20~80% 급증

지난 5. 6월 저온현상으로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던 수박과 에어컨이 폭염으로 뒤늦게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또 무더위가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름상품 매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26일부터 8월 현재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나 잘 팔렸으며, 7월 한 달 동안 수박 매출은 59.2%나 늘었다.

수박 매출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혔던 6월에는 수박 매출이 19.5% 증가한 데 그쳤다.

올 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5~6월에 나온 수박이 예년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값은 올라 수박을 찾는 소비자가 줄었던 반면, 7월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수박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7월 수박의 품질이 좋아지고 5월~6월에는 수박가격이 예년에 비해 10~20% 높았던 반면 7월에는 수

박 가격이 예년과 비슷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에어컨도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진다는 예보가 잇따르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월 넷째 주부터 에어컨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8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80.4%나 급증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에어컨 매출이 15.9% 감소했지만 7월에는 에어컨

매출이 74%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매출은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 매출이 가장 높지만 올해는 이 법칙이 깨진 것이다.

폭염에 선글라스(35.4%), 모기향(22.3%), 냉장음료(21.1%), 아이스크림(20.5%) 등 여름상품 매출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올 초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이 대형마트 트렌드마저 바꾸고 있다”며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어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이 9일 1층 햇빛 광장에서 휴가철 물놀이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물놀이 용품 대전’을 열고 수영복, 캠핑용품 등 여름휴가용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제공>

올 재테크  
최고는 금

올들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재테크 상품은 금이 차지했다.

하지만 불패의 신화를 이어오던 부동산 수익률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주식과 부동산, 금, 채권 등 주요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금의 수익률이 올들어 지난 5일까지 8.06%로 1위를 차지했다.

금은 국내 도매가격 3.75g(1돈) 기준으로 지난 5일 현재 18만4250원으로, 작년 12월31일 17만5000원보다 1만3750원이 올랐다.

또 주식과 우량회사채 투자도 선전했다.

간접투자인 국내주식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이 기간에 5.46%로 2위를 차지했고 직접투자인 KOSPI200과 연동한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200은 5.04%로 4위를 차지했다.

우량회사채인 POSCO287은 이 기간 수익률이 5.06%로 3위였다.

이에 반해 부동산인 국민은행 주택 가격지수는 지난 5일 현재 102.303으로 작년말의 101.465에 비해 0.83% 상승,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수익률은 원·달러 환율로 작년말 달러당 1164.5원인 원화 가치가 지난 5일 현재 1166.5원으로 0.17%(2원) 오르는데 그쳤다. 정기예금 수익률도 ‘신한MINT 1년차리 정기예금’의 경우 이 기간 수익률이 1.71%로 밑에서 3위였다. /연합뉴스

광주지하철서도 무선인터넷 서비스

SKT와 제휴·상무역 등 20개 역사 와이파이 존

광주지하철 상무역 등 20개 역사에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제휴를 맺고 상무역 등 20개 역사에 무선 인터넷 접속장치인 AP(Access Point)를 109곳에 설치, 지난 7일부터 광주지하철 20개 역사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상 역을 선정하고 7월 한달 동안 설계와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평동역 등 4개 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이번 와이파이 존은 SK텔레콤 고객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 고객도 간단한 인증만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구축해 지하철 이용자 모두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최근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무선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달중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역사와 인천·대전·대구·부산 등의 지하철 전 역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와이파이망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마늘값 207% 폭등

배추·무 등 채소값 오름세  
생산자 물가 8개월째 상승

채소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자물가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6월 4.6%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채소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 33.8% 뛰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4.7%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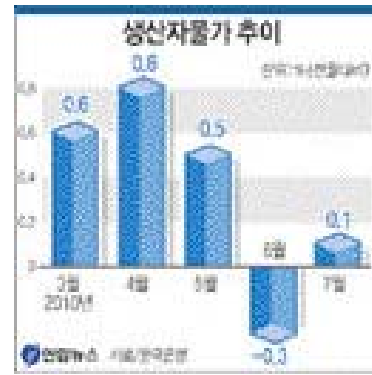
광주지역에서도 채소, 과일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에 따르면 9일 현재 마늘(간마늘·1kg) 값은 8500원으로 1년 전 보다 207%나 폭등했다.

양파(상품·1kg) 값도 1년 전 700원에서 1200원으로 71.4%나 올랐으며 배추와 무도 1년 사이 33~36% 올라 각각 4000원,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여름과일도 무더위로 출하량이 줄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참외(상품·10개)는 1만5000원으로 1년 사이 50%나 값이 올랐으며 복숭아(상품·10개)도 1년 전 1만5768원에서 47.6%나 올라 2만3270원에 판매되고 있다.



1년 전 6000원에 거래됐던 포도(캠벨·1kg)도 33.3%나 오르면서 8월 현재 8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inner Show 'Song Daekwan' at Gyeongju Convention Center on August 20, 2010. Price 150,000 KRW.

Advertisement for El Dorado Resort featuring a water park and golf course. Includes text like '무전해수욕장 매일 운영' and '슬로시티 송도'.

Advertisement for Seolmeos Baseball Club (Seolmeos Baseball Club) with ticket prices and a table of seating areas and prices.